

현대차, 말레베어 폐쇄 · 발레오공조 역수입 목인?

현대차 공급망 정책 규탄 금속노조 기자회견 ... “말뿐인 현대차 동반성장” 비판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와 부산양산지부 말레베어분회는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공급망 정책을 비판했다.

서민재 노조 말레베어분회 부분회장은 “일방적인 먹튀 통보를 받았다”라며 말레베어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독일 말레그룹 본사가 노조 말레베어분회에 말레베어 부산공장을 2025년 9월 폐쇄하겠다고 알렸다. 말레베어 부산공장 물량은 중국과 인도 현지 공장으로 이전한다는 입장이다.

서민재 말레베어분회 부분회장은 “현대차 부품 만드는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라며 “현대차 자본은 현대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든 상관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서 부분회장은 “현대차가 말레베어 상황을 모를 수는 없다”라며 “그들이 말하는 ‘동반성장’에 부품사 노동자들은 없다. 말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민재 부분회장은 “이제라도 현대차가 말레베어 공장 폐쇄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나서 현대차 원하청 동반성장을 직접 실천해야 한다”라고 현대차 자본에 원청의 역할을 주문했다.

노조 발레오만도지회는 사측의 중국산 부품 역수입(BUY-BACK, 바이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이 일하는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에서 지난해 11월 상해발레오가 생산한 부품을 들여오기 시작했다.

신시연 발레오만도지회장에 따르면 사측은 현대차 승인을 받아 더 많은 부품을 해외 공장에서 역수입한다는 계획이다. 노조 항의에 사측은 현대차와 품번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시연 지회장은 “현대차는 부품 역수입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발레오는 이득만 챙긴 채 한국공장과 노동자들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먹튀를 우려했다.

손덕헌 노조 부위원장장은 “말레베어와 발레오공조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누렸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은 소홀하다”라며 ‘외투 먹튀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하루빨리 규제책을 만들고 정부는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96명 “한국옵티칼 해고자 평택공장 고용 승계해야”

야당 공동 서한 발표 기자회견 ... 노조, 이달 말 의원들과 일본 니토텐코 본사 방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5곳 야당 국회의원들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고용승계 관련 일본 니토텐코 결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도 함께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아래 한국옵티칼) 노동자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 96명의 공동 서한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한국옵티칼과 한국니토텐옵티칼은 사실상 같은 회사라는 점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노동인권을 중요 의제로 삼는다는 점 등을 들어 원청 니토텐코에 한국옵티칼 해고자 고용승계 이행과 노동인권 침해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옵티칼지회에 따르면, 니토텐코 자본은 한국옵티칼 구미공장에서 한국니토텐옵티칼 평택공장으로 한 달 만에 아무 문제 없이 물량을 이동했다. 해고자 11명 고용승계는 거부하면서 정작 물량 증가 때문에 한국니토텐옵티칼 신규 채용을 진행했다. 손해배상 가압류 등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일본어로 반성문을 쓰라는 식으로 조합원들에게 모멸감을 준다.

기자회견 참석 의원들은 원청 니토텐코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니토텐코는 한국옵티칼·니토텐옵티칼 모두 지역만 다를 뿐 똑같은 ‘원-니토’라고 말해왔다”라며 “한국옵티칼에서 한국니토텐옵티칼로 물량을 이전해 놓고도 한국옵티칼 노동자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최현환 지회장도 “무더위 속 불탄 공장 위에서 해고노동자들이 200일 가까이 고공농성 중”이라며 “원청 니토텐코가 나서야 이들이 하루빨리 내려올 수 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의원들은 “한국옵티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니토텐코와 일본 정부·의회에 대한 민국 국회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것”이라며 일본 니토텐코 본사 방문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미 사측에 이달 26일 또는 27일 본사 대표이사 면담을 요청한 상태. 금속노조와 김주영·이용우(민주당), 윤종오(진보당) 세 명 의원은 니토텐코 본사 면담을 위해 25일 일본 도쿄에 갈 계획이다. 26일 일본 내각부 앞, 국회의원회관 등에서 니토텐코 고용승계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니토텐코는 구미 한국옵티칼과 평택 한국니토텐옵티칼 공장에서 LCD 편광필름을 생산해 왔다. 한국옵티칼 구미공장이 2022년 10월 화재로 전소한 뒤 니토텐코는 바로 다음 달인 11월 한국옵티칼 청산을 결정하고 물량을 모두 한국니토텐옵티칼 평택공장으로 넘겼다. 이 결과 한국니토텐옵티칼은 매출이 17%, 영업이익도 16%가량 늘었다. 늘어난 물량을 위해 30명을 고용했다.

